KFDA Namtaek

권남택, 오정민, 유경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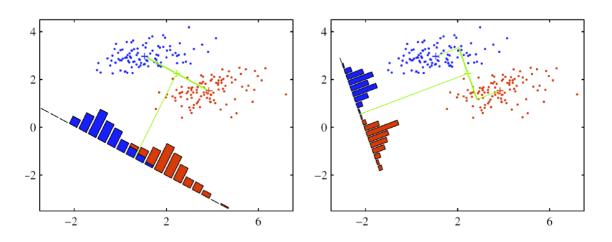
2021년 2월 23일

1 KFDA

KFDA는 Kernel Fisher Disciminant Analysis의 줄임말이다. 판별분석에 커널버전이다. 따라서 판별분석에 대해 먼저 다루고, KFDA를 다루자.

1.1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(선형판별분석)

1.1.1 LDA의 아이디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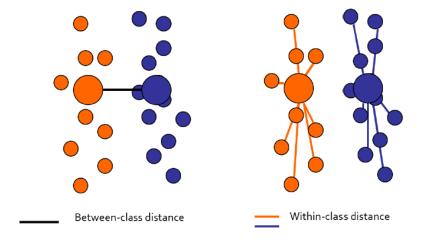


LDA는 두 클래스를 가장 잘 구분하는 하나의 축을 찾는 것이다. PCA같은 경우에는 분산을 최대로 보존하는 여러개의 축을 찾았지만, LDA는 단 하나의 축에 Projection 시킨다. 사진처럼 하나의 축에 Projection 시키는 것은 되게 다양할 수 밖에 없는데, 어떻게 해야 최적의 축 (기저, Basis)를 찾을 수 있을까?

두 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하자. 왼쪽의 사진처럼 축을 찾으면, 두 클래스가 겹치는 부분이 많다. 반면에 오른쪽 사진처럼 축을 잡으면, 두 클래스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두 클래스는 명확하게 나뉘면서, 동시에 같은 클래스는 충분히 밀집해있어야 좋은 분류가 가능하다고 직관적으로 파악 가능하다.

이를 LDA의 언어로 말하자면,

- 1) 다른 클래스 사이의 거리(분산)는 최대화 하면서,
- 2) 같은 클래스 사이의 거리(분산)는 최소화해야 한다.



1.1.2 Notation

우리가 찾아야하는 축은 w이다. x를 새로운 기저로 Projection을 시키면, 다음과 같다.

$$y = \mathbf{w}^T \mathbf{x}$$

각 클래스의 중심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.

$$\mathbf{m}_1 = \frac{1}{N_1} \sum_{n \in C_1} \mathbf{x_n}, \qquad \mathbf{m}_2 = \frac{1}{N_2} \sum_{n \in C_2} \mathbf{x_n}$$

1) 먼저 다른 클래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자.

$$m_2-m_1=\mathbf{w}^T(\mathbf{m_2}-\mathbf{m_1})$$

2) 그 다음 각각 클래스 내의 분산을 계산하자.

$$s_k^2 = \sum_{n \in C_k} (y_n - m_k)^2$$

클래스 사이의 거리는 커져야하고, 클래스 내의 분산은 작아져야하기 때문에, 각각을 분자와 분모로 넣으면 최대화 하는 문제로 바꿀수 있다.

$$\begin{split} J(\mathbf{w}) &= \frac{(m_2 - m_1)^2}{s_1^2 + s_2^2} = \frac{\mathbf{w}^T \mathbf{S}_B \mathbf{w}}{\mathbf{w}^T \mathbf{S}_W \mathbf{w}} \\ \mathbf{S}_B &= (\mathbf{m}_2 - \mathbf{m}_1) (\mathbf{m}_2 - \mathbf{m}_1)^T \\ \mathbf{S}_W &= \sum_{n \in C_1} (\mathbf{x}_n - \mathbf{m}_1) (\mathbf{x}_n - \mathbf{m}_1)^T + \sum_{n \in C_2} (\mathbf{x}_n - \mathbf{m}_2) (\mathbf{x}_n - \mathbf{m}_2)^T \end{split}$$

우리는 언제나 최대화/최소화 문제에서 미분값 = 0으로 놓고 문제를 푼다. 목적함수 J가 Convex 문제인지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애매할 수 있지만, Convex 문제라고한다…!! 따라서 걱정없이 미분을 때려버리자! 지금의 형태는 $\frac{f}{g}$ 의 상황이기 때문에, 이를 미분 때리면 $\frac{f'g-fg'}{g^2}$ 가 된다. 미분값=0으로 해버리면 다음과 같다.

$$(\mathbf{w}^T\mathbf{S}_B\mathbf{w})\mathbf{S}_W\mathbf{w} = (\mathbf{w}^T\mathbf{S}_W\mathbf{w})\mathbf{S}_B\mathbf{w}$$

근데 여기서 $\mathbf{w}^T \mathbf{S}_B \mathbf{w}$ 와 $\mathbf{w}^T \mathbf{S}_W \mathbf{w}$ 는 스칼라 값이다. $\mathbf{S}_B \mathbf{w}$ 의 경우는

$$\mathbf{S}_B\mathbf{w} = (\mathbf{m}_2 - \mathbf{m}_1)(\mathbf{m}_2 - \mathbf{m}_1)^T\mathbf{w} = \beta(\mathbf{m}_2 - \mathbf{m}_1)$$

와 같이 변경될 수 있다.

따라서 각각의 scalar 값을 걍 무시하면 다음과 같은 요약이 가능하다.

$$\mathbf{w} \propto \mathbf{S}_W^{-1}(\mathbf{m}_2 - \mathbf{m}_1)$$

우리가 찾고자하는 축 w는 위의 식에 비례하게 되고, 그냥 스칼라 값은 무시한다음 저 벡터를 유닛벡터로 만들어 주면 끝나게 된다!

1.1.3 LDA의 추가적인 설명

맨처음 LDA의 그림에서 projection 했을 때 이들의 분포가 일종의 정규분포와 같은 형태를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이처럼 LDA는 data가 normally distributed되었다는 가정에 기반한다. 각각의 그룹 또한 동일한 공분산구조를 가진다고 가정하기 때문에, 매우 제약이 쎈 모형이다. 클래스 별로 공분산 구조가 다르다고 가정할 경우, QDA (Quadratic Discriminant Analysis)가 된다. 이 경우에는 비선형적인 분리가 가능해진다.

그러면 QDA와 KFDA는 어쩌면 비슷하지 않을까, 특정 조건에서는 같지 않을까 생각도 잠깐 해봤는데 (왜냐하면 2차원 혹은 3차원에서의 비선형 분리를 하게되면 시각적으로는 QDA나 KFDA나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?), QDA의 Kernel 버전도 존재한다. 따라서 아니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다.

1.2 Kernel Fisher Disciminant Analysis

1.2.1 Notation

KFDA는 LDA의 커널화된 버전이다. $\mathbf{x} \to \Phi(\mathbf{x})$ 로, \mathbf{x} 를 더 고차원인 $\Phi(\mathbf{x})$ 상에서 projection을 진행한다. 해당 공간에 대한 공분산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.

$$\mathbf{C}^\Phi = \frac{1}{N} \sum_{n=1}^N (\Phi(\mathbf{x}_n) - \mathbf{m}^\Phi) (\Phi(\mathbf{x}_n) - \mathbf{m}^\Phi)^T, \qquad \mathbf{m}^\Phi = \frac{1}{N} \sum_{n=1}^N \Phi(\mathbf{x}_n)$$

더불어서 고차원으로 매핑된 공간에서의 '클래스 내의 분산'과 '클래스 간의 분산'을 계산하자.

$$\begin{split} \mathbf{S}_W^\Phi &= \sum_{i=1,2} \sum_{n=1}^{N_i} (\Phi(\mathbf{x}_n^i) - \mathbf{m}_i^\Phi) (\Phi(\mathbf{x}_n^i) - \mathbf{m}_i^\Phi)^T \\ \mathbf{S}_B &= (\mathbf{m}_2^\Phi - \mathbf{m}_1^\Phi) (\mathbf{m}_2^\Phi - \mathbf{m}_1^\Phi)^T \end{split}$$

1,2,2 Objective Function

KFDA의 목적함수는 결국 LDA와 다르지 않지만, 분산 텀 부분만 달라진다.

$$J(\mathbf{w}) = \frac{\mathbf{w}^T \mathbf{S}_B^{\Phi} \mathbf{w}}{\mathbf{w}^T \mathbf{S}_W^{\Phi} \mathbf{w}}$$

더불어서 w $=\sum_{n=1}^N lpha_n \Phi(\mathbf{x}_n)$ 라고 두게 되면, mean을 다음과 같이 projection할 수 있다.

$$\begin{split} \mathbf{w}^T \mathbf{m}_i^\Phi &= \frac{1}{N_i} \sum_{n=1}^N \sum_{k=1}^{N_i} \alpha_n (\Phi(\mathbf{x}_n) \cdot \Phi(\mathbf{x}_k^i)) \\ &= \frac{1}{N_i} \sum_{n=1}^N \sum_{k=1}^{N_i} \alpha_n \mathbf{K}(\mathbf{x}_n, \mathbf{x}_k^i) = \alpha^T \square_i \end{split}$$

결국 매핑된 공간에서 클래스의 중심은 다음과 같은 커널함수로 바로 나타난다.

$$(\mu_i)_n = \frac{1}{N_i} \sum_{k=1}^{N_i} \mathsf{K}(\mathsf{x}_n, \mathsf{x}_k^i)$$

그렇다면 이제 목적함수를 보자. 목적함수도 결국에는 커널함수로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, 이를 미분하게 될 것이고 그 꼴이 커널 트릭의 존재 때문에 매우 간단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.

목적함수의 분자부분을 먼저 보면,

$$\begin{split} \mathbf{w}^T \mathbf{S}_B^\Phi \mathbf{w} &= \mathbf{w}^T (\mathbf{m}_2^\Phi - \mathbf{m}_1^\Phi) (\mathbf{m}_2^\Phi - \mathbf{m}_1^\Phi)^T \mathbf{w} \\ &= \alpha^T (\mu_2 - \mu_1) (\mu_2 - \mu_1)^T \alpha \\ &= \alpha^T \mathbf{M} \alpha, \qquad \text{where } \mathbf{M} = (\mu_2 - \mu_1) (\mu_2 - \mu_1)^T \end{split}$$

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.

더불어서 목적함수의 분모부분을 보면 조금 전개가 많이 귀찮다. 따라서 결과만 간단히 요약한다면

$$\begin{split} \mathbf{w}^T \mathbf{S}_W^{\Phi} \mathbf{w} &= (\sum_{i=1}^N \alpha_i \Phi(\mathbf{x}_i)) \ (\sum_{j=1,2} \sum_{n=1}^{N_i} (\Phi(\mathbf{x}_n^j) - \mathbf{m}_j^{\Phi}) (\Phi(\mathbf{x}_n^j) - \mathbf{m}_j^{\Phi})^T) \ (\sum_{k=1}^N \alpha_k \Phi(\mathbf{x}_k)) \\ &= \sum_{j=1,2} \alpha^T \mathbf{K}_j \mathbf{K}_j^T \alpha - \alpha^T \mathbf{K}_j \ \mathbf{1}_{N_j} \ \mathbf{K}_j^T \alpha \\ &= \alpha^T \mathbf{N} \alpha, \qquad where \ \ \mathbf{N} = \sum_{j=1,2} \mathbf{K}_j (\mathbf{I} - \mathbf{1}_{N_j}) \mathbf{K}_j^T \end{split}$$

다음과 같다.

결국 우리의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.

$$J(\alpha) = \frac{\alpha^T \mathsf{M} \alpha}{\alpha^T \mathsf{N} \alpha}$$

이 목적함수에 대해 미분하고 정리를 하면 이전과 결과가 비슷하다. 바로 넘어가보자.

$$\alpha = \mathrm{N}^{-1} \; (\mathrm{M}_2 - \mathrm{M}_1)$$

왜 w가 아닌 α 를 찾았는가? w는 고차원 공간에서 선형으로 사영하는 것이고, 이를 원래 공간에서 사영해주는 것이 바로 알파이다. 그래서 이를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로 매핑하게 되면

$$y(\mathbf{x}) = (\mathbf{w} \, \cdot \, \Phi(\mathbf{x})) = \sum_{n=1}^N \alpha_n \mathsf{K}(\mathbf{x}_n, \mathbf{x})$$

이런 비선형적인 분리를 다음과 같이 시각화 할 수 있다. 왼쪽은 Polynomial Kernel을 사용한 것이고, 오른쪽은 Gaussian Kernel을 사용한 것이다.

